

가족구조에 따른 아동 우울의 보호요인 탐색: 부모의 정서적 지지와 지역사회 지지 요인을 중심으로

송수정*

초 록

본 연구는 양부모 및 한부모 가족 아동의 우울에 부모의 정서적 지지와 지역사회 지지가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지 규명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2011년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과제인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지원방안 연구 I' 데이터의 초등학교 4-6학년 아동 2,883명을 대상으로 양부모 및 한부모 가족 아동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아동의 우울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부모의 정서적 지지와 지역사회 지지가 아동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또한 가족구조가 아동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부모의 정서적 지지와 지역사회 지지가 조절효과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결과는 첫째, 한부모 가족 아동의 우울 수준이 양부모 가족 아동의 우울 수준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둘째, 부모의 정서적 지지와 지역사회 지지 요인 모두 양부모 및 한부모 가족 아동 우울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양부모 가족 아동의 경우 부모의 정서적 지지 요인이 한부모 가족 아동의 경우 지역사회 지지 요인이 아동의 우울을 더 높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모의 정서적 지지는 한부모 가족 아동의 우울에 대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지 못하였으나 지역사회 지지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 및 제언점을 기술하였다.

주제어 : 가족구조, 아동의 우울, 부모의 정서적 지지, 지역사회 지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인턴, songsoojung@naver.com

I. 서 론

개인의 정서적 적응은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최근에는 아동의 정서적 적응에 대한 여러 사회적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아동기에 나타나는 다양한 정서적 적응 양상 가운데 최근 심각하게 대두되는 문제 중 하나는 ‘우울’이다.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중 약 31%는 2주 내내 일상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우울감을 경험한다고 보고되며(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2), 아동·청소년기 우울은 여러 가지 행동문제를 낳고 더 나아가 자살사고와 자살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혀진 바(서한나, 2011; 신민섭, 박광배, 오경자, 김중술, 1990; 여환홍, 백용매, 2010; 이주연, 장성화, 2013; Rao, Weissman, Martin & Hammond, 1993), 이에 대한 조속한 개입과 더불어 지속적 연구를 통한 예방적 접근의 검증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아동의 우울에 대한 연구는 주로 우울의 원인을 찾는 것에 주력해 왔다. 선행연구를 통해 아동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맥락적 요인들이 보고되었는데, 특히 부모의 이혼 및 사별과 같은 가족구조의 변환은 아동에게 지대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Hoyt, Cowen, Pedro-Carroll & Alpert-Gillis, 1990). 부모의 이별이나 사별은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큰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스트레스 대처전략이 완전히 발달되지 않고 타인의 행동이나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운 아동기에 경험하는 극심한 스트레스는 부적응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김태련 외, 2004).

더불어 아동기에 경험한 한쪽 부모의 상실은 성인기의 사회·정서적 적응에까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졌으며(Tyrka, Wier, Price, Ross & Carpenter, 2008; Wallerstein & Lewis, 2004), 한부모 가족은 최근 들어 이혼 증가 등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고(여성가족부, 2012) 앞으로 가족구조가 분화되는 사회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임이 예측되는 바(성윤숙, 김영한, 2011) 이제는 변화된 가족의 부정적 특성을 규명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재구조화된 가족의 적응을 돕는 보호요인을 탐색하는 데 주력을 기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본다. 더욱이 아동의 문제행동을 완화시키는 변인을 증진시키는 것이 발생시키는 변인을 제하는 것보다 예방에 더 효과적이라는 한상철(2008)의 설명을 고려하였을 때 한부모 가족 아동의 우울에 대한 위협성을 중재

하는 요인을 탐색하여 개입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McFarlane, Bellissimo, Norman and Lange(1994)는 아동의 우울을 완화시킬 수 있는 주 보호요인으로 가족의 지지체계를 제시하였다. 가족은 인간이 태어나 최초로 경험하게 되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장으로(Berk, 2009), 가족과의 관계는 가장 직접적이며 일차적으로 아동의 적응의 기반이 된다. 가족과의 긍정적 관계와 친밀한 정서적 분위기는 우울을 감소시키는 완충작용을 하며(Colomba, Santiago & Rossello, 1999), 어머니가 자녀의 정서를 민감하게 인식하고 수용해주는 태도는 우울한 아동·청소년의 정서적 적응 수준을 높인다고 보고되었다(Hunter et al., 2011). 이와 유사한 맥락으로 부모의 애정과 지지적 양육태도는 아동의 낮은 우울수준을 예측하며(남은영, 2009; 이현만, 한성희, 1996),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수용적 태도가 아동의 우울을 감소시킨다고 하였다(성태희, 2013). 이러한 양상은 한부모 가족의 경우도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지선례와 이숙(2012)은 이혼가정의 자녀일지라도 부모의 애정적인 양육태도로 인해 우울이 경감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위와 같은 연구들은 아동의 우울을 발생 및 지속시키는 요인으로서의 부모 기능에 대해선 밝히고 있지만, 이를 통해 부모 변인이 ‘한부모 가족’이라는 독특한 맥락에 대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지 알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진다. 한부모의 경우 배우자의 부재로 인한 역할과중과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고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양적·질적으로 감소하는 등(남현주, 윤형식, 이태영, 신채영, 이동훈, 2013; 송옥, 2012) 부모 자녀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다분하다. 이렇듯 한부모 가족에서는 양부모 가족 비 부모의 기능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이 예측되는 바 한부모 가족의 독특한 특성을 고려하여 부모의 지지적 역할의 기능에 대해 추가적으로 탐색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양부모 가족과 한부모 가족 아동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가족구조의 변환이라는 위험요인에 대해 부모의 정서적 지지가 보호적 기능을 하는지 탐색해 보려한다.

한편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맥락 변인으로 ‘지역사회 지지’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분명한 것은 변화된 가족구성원으로 인해 아동발달에 대한 가족의 기능은 전통적 방식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곧 아동발달에 대한 공적영역의 책임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한경혜, 이정화, 진미정, 2009) 지역사회와 같은 또 다른 지지체계가 중요한 기능을 할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다. 발달적 관점에서 ‘지역사회’

는 개인을 둘러싸고 있으면서 아동의 발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장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가지는데(Bronfenbrenner & Morris, 2006), 상기한 바와 같이 가족요인과 아동의 우울과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져 왔으나 지역사회 환경의 영향력에 대해 살펴본 연구는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아동은 성인에 비해 활동범위가 거주지역 내 사회로 제한되어 있어 지역사회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음에 따라 그 영향력이 클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지역사회 변인은 아동의 정신건강에 대한 보호요인으로서 그 타당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아동의 우울과 지역사회 환경과의 관계를 밝힌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소속지역의 사회경제적 지위, 거주시민의 학력 등과 같은 사회사회의 구조적인 특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강현아, 2010; 강희경, 김영미, 이은주, 2009; Aneshensel & Sucoff, 1996). 이러한 연구결과는 지역사회의 복지 지원 정책을 이끌어 낸 데에는 큰 기여를 했지만 인간의 다양한 상호작용의 긍정적 효과를 밝히는 데 필요한 지역사회의 기능적 특성을 간과했다는 한계를 갖는다. Sampson, Morenoff and Gannon-Rowley(2002)는 아동의 적응에 대한 지역사회의 효과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능적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생태체계적 접근으로 아동의 정서적 적응의 발달 모형을 검증한 연구에서도 지역사회의 효과를 탐색한 것은 찾아보기 어려우며(Cicchetti & Toth, 1998; 김기정, 2009), 최근에는 지역사회 역할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면서 그 영향력에 대해 연구되어(서정아, 2013), 지역사회의 기능적 효과에 대한 논의는 아직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지역사회의 기능적 측면의 역할을 탐색하는 것이 의의가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으며, 특히 가족의 기능이 약화되어 있는 한부모 가족 아동에게 중요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것임을 가정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요약하면 현대사회의 변화된 가족구조는 아동의 정서적 적응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부모의 정서적 지지와 지역사회의 기능적 변인이 보호요인으로 타당한지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가족구조에 따라 아동의 우울 수준이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가족구조가 아동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부모의 정서적 지지와 지역사회 지지 요인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가족구조와 아동의 우울 간 관계에서 부모 및 지역사회 요인이 중재·보호 작용을 하는지 밝히는 데 궁극적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설정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양부모 가족과 한부모 가족 아동의 우울 수준에 차이가 있는가?

둘째, 부모의 정서적 지지, 지역사회 지지가 양부모 가족 및 한부모 가족 아동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가족구조가 아동의 우울에 미치는 경로에서 부모의 정서적 지지 및 지역사회 지지가 조절효과를 보이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1년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과제인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지원방안 연구 I』 데이터의 초등학교 4-6학년 아동 2,88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원 데이터에서는 조손가족, 기타 및 무응답을 포함하여 총 2,94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조손가족과 기타 및 무응답의 표본이 작아 이를 제외한 2,88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아동의 성별은 남아 1,454명(51.4%), 여아 1,377명(48.6%), 학년은 4학년 923명(32.6%), 5학년 965명(34.1%), 6학년 943(33.3%), 가족구성은 양부모 가족 2,749명(95.4%), 한부모 가족 134명(4.6%)이었다.

2. 측정도구

1) 부모의 정서적 지지

부모의 정서적 지지는 최인재, 모상현과 강지현(2011)의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지원방안 연구 I’ 설문지에 포함된 ‘부모의 지원’의 하위요인인 정서적 지원에 해당되는 문항을 사용하였다. 평소 부모님께서 자신에게 대하는 태도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와 같이 4점 척도로 아동이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총 6문항으로 "정신적으로 편안하게 해 주신다", "따뜻하게 대해 주신다", "실망하거나 좌절할 때 위로해 주신다" 등이 포함되며, 총점 범위는 6점에서 24점이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93으로 나타났다.

2) 지역사회 지지

지역사회 지지는 최인재 외(2011)의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지원방안 연구 I' 설문지에 포함된 '지역사회 지원'에 해당되는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는 아동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과 이웃에 대하여 평정하도록 되어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와 같이 4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문항은 총 3문항으로, "가족, 친구, 선생님 외에 주위에 내가 힘들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가족, 친구, 선생님 외에 주위에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 "주위에 내가 힘들거나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시설이 있다"이다. 총점 범위는 3점에서 12점으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0으로 나타났다.

3) 우울

아동의 우울은 최인재 외(2011)의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지원방안 연구 I' 설문지에 포함된 '우울'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각 문항별로 우울의 정도에 따라 기술된 4개의 문장 중에서 오늘을 포함해서 지난 일주일 동안의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문장을 선택하는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마다 0점에서 3점이 주어지게 되어 총점 범위는 0점에서 63점으로 나타난다. 총 21문항으로, 본 문항들은 Beck과 동료들(1961)이 우울의 정서적, 인지적, 동기적, 생리적 영역을 포함한 우울증상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BDI(Beck Depression Inventory) 문항과 일치한다. 이영호와 송종용(1991)은 BDI 총점을 우울 수준 별로 0-9점은 우울하지 않은 상태, 10-15점은 가벼운 우울상태, 16-23점은 중간정도의 우울상태, 24-63점은 심한 우울상태라고 구분하였다(조설아, 2005). 본 연구에서는 이 분류를 적용하여 우울수준을 나누어 일부 분석에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문항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8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첫째, 가족구조에 따라 아동의 우울수준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통해 양부모 가족과 한부모 가족 아동의 우울 수준별 빈도를 살펴보고, 양부모 및 한부모 가족 아동의 우울에 차이가 있는지 t검증을 실시하였다. 둘째, 부모의 정서적 지지와 지역사회 지지 및 아동의 우울 간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양부모 및 한부모 가족을 나누고 각각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양부모 및 한부모 가족 부모의 정서적 지지와 지역사회 지지가 아동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족구조가 우울에 미치는 경로에서 부모의 정서적 지지와 지역사회 지지가 완충작용을 하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검증하였다. 먼저, 가족구조를 더미코딩하고(0: 양부모 가족, 1: 한부모 가족), 독립변수(가족구조)와 조절변수(부모의 정서적지지 및 지역사회 지지)를 mean-centering 과정을 거친 후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을 만들어 조절회귀분석을 함으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조절변수에 따라 달라지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조절효과 검증은 상호작용항의 유의성과 독립변수 및 상호작용항의 계수 부호에 따라 판단하였다(이학식, 2012).

Ⅲ. 연구결과

1. 가족구조에 따른 아동의 우울

1) 가족구조에 따른 아동의 우울 수준별 빈도분석

양부모 및 한부모 가족 아동의 우울 수준 빈도를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1 과 같다. 양부모 가족 아동의 77.7%, 한부모 가족 아동의 61.9%가 우울하지 않은 상태, 양부모 가족 아동의 12.7%, 한부모 가족 아동의 20.9%는 가벼운 우울상태에 분포하였다. 중간 정도의 우울 상태에 속한 아동은 양부모 가족에서 5.9%, 한부모 가족에서 10.4%였으며, 심한 우울상태에 속한 아동은 양부모 가

족의 3.7%, 한부모 가족의 6.7%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한부모 가족 아동은 양부모 가족 아동에 비해 우울하지 않은 상태에 속한 비율은 낮고, 우울상태(가벼운 우울상태, 중간 정도의 우울상태, 심한 우울상태)에 속한 비율은 높게 나타났다.

표 1
양부모 및 한부모 가족 아동의 우울 수준별 빈도

구 분	빈도(%)	
	양부모 가족 (N=2,749)	한부모 가족 (N=134)
우울하지 않은 상태(0-9점)	2,136(77.7%)	83(61.9%)
가벼운 우울상태(10-15점)	350(12.7%)	28(20.9%)
중간 정도의 우울상태(16-23점)	161(5.9%)	14(10.4%)
심한 우울상태(24-63점)	101(3.7%)	9(6.7%)

2) 가족구조에 따른 아동의 우울 차이검증

양부모 가족 아동과 한부모 가족 아동의 우울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고, 이에 따른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양부모 가족 아동의 우울 ($M=6.41$, $SD=7.34$)은 한부모 가족 아동의 우울($M=9.23$, $SD=9.21$)보다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t=-3.49$, $p<.01$).

표 2
양부모 가족 아동과 한부모 가족 아동의 우울 비교

구분	양부모 가족 (N=2749)	한부모 가족 (N=134)	평균(표준편차)
우울	6.41(7.34)	9.23(9.21)	-3.49**

** $p<.01$

2. 아동의 우울과 부모의 정서적 지지 및 지역사회 지지 간의 상관관계

부모의 정서적 지지와 지역사회 지지 및 우울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양부모 가족과 한부모 가족 각각 나누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양부모 가족 아동의 우울은 부모의 정서적 지지와 부적상관($r=-.43$, $p<.01$), 지역사회 지지와 부적상관($r=-.31$, $p<.01$)을 보였다. 한부모 가족 아동의 우울은 부모의 정서적 지지와 부적상관($r=-.39$, $p<.01$), 지역사회 지지와 부적상관($r=-.45$, $p<.01$)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양부모 및 한부모 가족 아동의 우울, 부모의 정서적 지지 및 지역사회 지지의 상관관계

	부모의 정서적 지지	지역사회 지지	우울
부모의 정서적 지지	-	.39**	-.39**
지역사회 지지	.41**	-	-.45**
우울	-.43**	-.31**	-

** $p<.01$

주. 양부모 가족의 상관계수는 대각선 아래, 한부모 가족의 상관계수는 대각선 위에 각각 제시하였음.

3. 아동의 우울에 대한 부모의 정서적 지지와 지역사회 지지의 단계적 회귀분석

부모의 정서적 지지와 지역사회 지지가 양부모 및 한부모 가족 아동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양부모 가족인 경우, 부모의 정서적 지지($\beta=-.37$, $p<.001$)가 지역사회 지지($\beta=-.16$, $p<.001$) 보다는 아동의 우울을 더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종 모형의 설명력은 21%로 나타났다.

한부모 가족인 경우, 지역사회 지지($\beta=-.35$, $p<.001$)가 부모의 정서적 지지($\beta=-.25$, $p<.001$) 보다 아동의 우울을 더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종 모형의 설명력은 25%로 나타났다.

위 분석에서 분산팽창요인(VIF)의 값은 모두 10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아동의 우울에 대한 부모의 정서적 지지와 지역사회 지지의 단계적 회귀분석

모형	변인	β	t	F	R^2
양부모 가족	1 부모의 정서적 지지	-.43	-25.03***	626.70***	.19
	2 부모의 정서적 지지	-.37	-19.67***	357.40***	.21
한부모 가족	1 지역사회 지지	-.16	-8.48***		
	2 지역사회 지지	-.45	-5.78***	33.36***	.20
한부모 가족	1 지역사회 지지	-.35	-4.29***		
	2 부모의 정서적 지지	-.25	-3.02***	22.28***	.25

*** $p < .001$

4. 가족구조와 아동의 우울 간 관계에서 부모의 정서적 지지의 조절효과

가족구조가 아동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부모의 정서적 지지에 따라 조절되는지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먼저 가족구조를 더미코딩(0: 양부모 가족, 1: 한부모 가족)한 후, 독립변인으로 가족구조, 부모의 정서적 지지, 가족구조와 부모의 정서적 지지의 상호작용항을 차례로 투입하였고, 종속변인으로는 아동의 우울 변인을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분산팽창요인(VIF)의 값은 모두 10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우울에 대해 가족구조($\beta = .07, p < .001$)와 부모의 정서적 지지($\beta = -.43, p < .001$)의 주효과는 유의하였으나 상호작용항의 투입된 모형에서의 설명력 변화가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구조(한부모 가족)가 아동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모의 정서적 지지의 조절효과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Delta R^2 = .000, ns$).

표 5
가족구조와 아동의 우울 간 관계에서 부모의 정서적 지지의 조절효과

종속변인	모형	투입변인	B(SE)	β	R^2	ΔR^2
우울	1	가족구조	2.82(.66)	.08***	.006	.006***
	2	가족구조	2.60(.59)	.07***	.188	.182***
		부모의 정서적 지지	-.79(.03)	-.43***		
	3	가족구조	2.62(.60)	.07***	.188	.000
		부모의 정서적 지지	-.79(.03)	-.43***		
		가족구조*부모의 정서적 지지	.10(.12)	.01		

*** $p < .001$

5. 가족구조와 아동의 우울 간 관계에서 지역사회 지지의 조절효과

가족구조가 아동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지역사회 지지에 따라 조절되는지 살펴 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6 과 같다. 독립변인으로 가족 구조, 지역사회 지지, 가족구조와 지역사회 지지의 상호작용항을 차례로 투입하였고, 종속변인으로는 아동의 우울 변인을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분산팽창요인(VIF)의 값은 모두 10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독립변인과 조절변인 및 상호작용항이 모두 투입된 최종 모형 3에서 가족구조($\beta = .07, p < .001$), 지역사회 지지($\beta = -.32, p < .001$), 상호작용항($\beta = -.05, p < .01$) 모두 아동의 우울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10.7%로 나타났다. 즉 가족구조가 아동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지역사회 지지 요인이 조절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Delta R^2 = .004, p < .01$) 한부모 가족의 아동 이어도 지역사회 지지가 높으면 우울 수준이 낮아짐을 예측할 수 있다.

그림 1은 가족구조에 따라 지역사회 지지가 아동의 우울에 어떠한 양상으로 상이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역사회지지 값을 평균을 기준으로 상집단과 하집단으로 나누어 도출해낸 그래프이다.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역사회 지지가

높은 상집단의 경우 하집단과 비교하였을 때 가족구조(한부모 가정)가 아동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작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양부모 가족 아동에 비해 한부모 가족 아동은 지역사회 지지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큰 폭으로 감소함을 볼 수 있다.

표 6

가족구조와 아동의 우울 간 관계에서 지역사회 지지의 조절효과

종속변인	모형	투입변인	B(SE)	β	R^2	ΔR^2
우울	1	가족구조	2.82(.66)	.08***	.006	.006***
		가족구조	2.55(.62)	.07***	.105	.099***
	2	지역사회 지지	-.98(.06)	-.32***		
		가족구조	2.37(.63)	.07***		
	3	지역사회 지지	-.98(.06)	-.32***	.107	.004**
		가족구조*지역사회 지지	-.72(.25)	-.05**		

*** $p < .001$. **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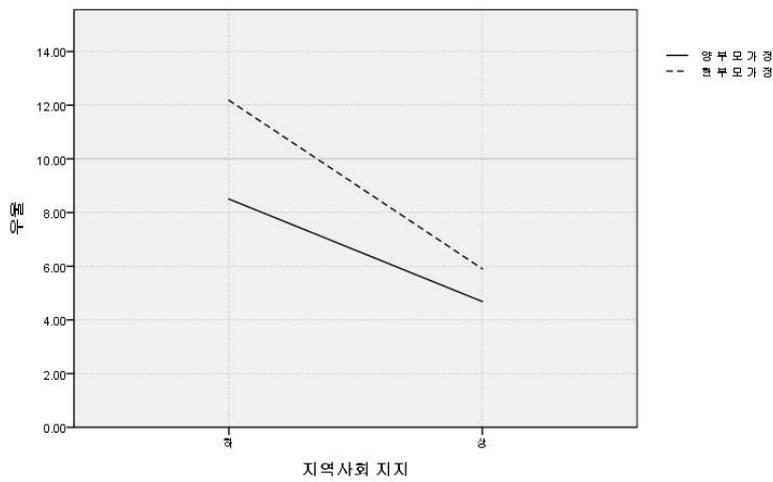


그림 1. 가족구조와 아동의 우울 간 관계에서 지역사회 지지의 조절효과

IV. 논 의

본 연구에서는 2011년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과제인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지원방안 연구 I’ 데이터의 초등학교 4, 5, 6학년 아동 2,883명을 대상으로 양부모 및 한부모 가족 아동의 우울, 부모의 정서적 지지 및 지역사회 지지 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측한 바와 같이 양부모 가족 아동에 비해 한부모 가족 아동의 우울 수준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한부모 가족 아동이 양부모 가족 아동보다 우울감이 높다는 연구결과(김재엽 외, 2012; Dawson, 1991; Kaslow, Deering & Racusin, 1994)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이혼 및 사별 등으로 한부모 혼자 가정을 담당해야 하면서 경제적 빈곤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러한 기제가 아동의 적응에 부정적으로 기능하였을 것이라 설명해 볼 수 있다(Dunn et al., 1998). 그러나 최근 몇몇 연구에서는 가족구조에 따른 아동의 적응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남영옥, 2010; 홍순혜, 2004), 이는 표본에 따라 자아존중감과 같은 개인 내적 보호요인이 함께 작용하여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남영옥, 2010). 다시 말해, 자아존중감과 같은 아동의 개인 내적 요인이 가족구조 변환에 대한 보호요인으로 기능하여 양부모 가족 아동의 적응 수준과의 차이를 좁혔을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가족의 형태와 관계없이 부모의 정서적 지지와 지역사회 지지는 아동의 우울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정서적 지지와 지역사회 지지가 높을수록 아동의 우울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다만 본 연구결과 흥미롭게도 가족구조에 따라 부모의 정서적 지지 및 지역사회 지지가 아동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이하게 나타났는데, 양부모 가족 아동의 경우 부모의 정서적 지지가 한부모 가족 아동의 경우는 지역사회 지지가 아동의 우울에 대한 설명력이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이혼가정 청소년의 정서적 적응에 가족기능보다는 사회적 지지가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이수연(2004)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이는 결국 한부모 가족 아동의 정서적 적응에 부모의 정서적 지지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지역사회 지지의 긍정적 효과가 더 크다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위 결과는 가족구조가 아동의 우울에 미치는 경로에서 부모의 정서적 지지와 지역사회 지지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먼저 부모의 정서적

지지의 경우 주효과는 나타났지만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많은 선행연구에서 보고되었던 것처럼 부모의 정서적 지지가 아동의 우울 경감에 긍정적인 영향은 주지만(남은영, 2009; Hunter et al., 2011), 한부모 가족의 취약성까지 완화시키지는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한부모가 가진 독특한 특성을 바탕으로 조심스럽게 유추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혼이나 사별을 경험한 한부모의 경우 정서적 상실감으로 인해 우울 및 불안감 증가, 과역할로 인한 양육스트레스 및 부정적 정서표현성 증가 등(송옥, 2012) 양부모에 비해 비교적 취약할 수 있다. 즉 한부모의 경우에는 부모의 정서적 지지 외에도 자녀와의 정서적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요인들이 많아 부모의 정서적 지지의 긍정적 효과를 저하시켰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더욱이 한부모의 특성 상 배우자의 부재로 인한 역할가중과 경제적 부담으로 자연스럽게 양적으로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는데(남현주 외, 2013), 이로 미루어 보았을 때 아동의 정서적 적응에 대해 부모의 긍정적 역할만으로는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을 것이라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본 연구결과 부모의 정서적 지지가 한부모 가족의 취약성을 상쇄시키지는 못하였지만, 한부모 가족이라도 부모의 정서적 지지가 아동의 우울을 경감시키는 데 긍정적 효과를 보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아동의 우울에 대한 개입 시 부모-자녀의 정서적 관계에 대한 지속적인 중재는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지역사회 지지는 가족구조가 아동의 우울에 미치는 경로에서 조절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사회 지지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한부모 가족구조가 아동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이 작아져 아동의 우울에 대한 위험요인으로서의 한부모 가족 취약성이 상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한부모 가족의 아동일지라도 지역사회 지지가 높은 수준의 집단에 해당되는 아동은 양부모 가족의 아동과 같이 우울수준 평균이 '우울하지 않은 상태'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 참조). 이러한 결과는 지역사회의 지지적 역할이 한부모 가족 아동의 우울에 대한 보호요인으로 기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아동기에는 자기조절능력이 완전히 발달되지 않아 새롭게 변화된 환경에 대한 스트레스를 다루고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가지는데(Hetherington, 1979), 이 때 한부모 가족 아동의 정서적 적응에 지역사회의 지지적 역할이 긍정적인 외적 자원으로 기능하는 데 타당하다고 볼 수 있겠다.

요약하면, 양부모 및 한부모 가족 아동의 우울 완화에 부모의 정서적 지지와 지역사회 지지 모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역사회 지지는 양부모 가족 아동보다는 한부모 가족 아동에게 더 큰 효과가 나타난 것을 미루어 보았을 때, 한부모 가족의 경우 부모가 줄 수 있는 긍정적 기능의 한계를 지역사회 지지 체계가 메꾸어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국가 차원의 아동·청소년 지원 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재 한부모 가족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정책을 살펴보면, 여성가족부 소관 하에 문화체험활동과 학습 지원 및 생활지원을 제공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프로그램과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교육 및 보호, 놀이와 오락, 보호자 및 지역사회 연계를 제공해주는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이 있다(여성가족부, 2012). 이는 한부모 가족의 어려움인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아동·청소년에게 교육 및 활동참여 기회를 제공해 주는 등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와 더불어 본 연구결과를 고려하였을 때 부모자녀 간 정서적 관계 및 지역사회의 지지체계 측면이 보완된다면 아동의 정서적 적응에 대한 긍정적 효과가 더 높아질 것이라 예측해 볼 수 있다. 특히 한부모 가족 아동의 경우 ‘관계형성 및 유지’에 중점을 둔 지역사회 내 지지체계 형성을 강화시킨다면 더 효과적인 지원정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끝으로 본 연구의 몇 가지 제한점을 토대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양부모 및 한부모 가족에 중점을 두고 살펴보았으므로 다양한 가족구조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는다. 특히 한부모 가족 내에서도 부자, 부녀, 모자, 모녀 가족의 형태로 분류될 수 있으며, 부모 및 자녀의 성별이나 한부모 가족의 발달시기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양부모 가족의 경우에도 양친 부모, 계부 및 계모 등 다양한 가족유형이 있으므로 후속연구를 통해 세밀한 기제가 추가적으로 밝혀져야 할 것이다.

둘째, 한부모 가족 아동의 우울에 대한 보호요인으로 개인 내적 변인을 함께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많은 선행연구를 통해 개인이 가진 탄력성은 아동의 환경적 영향을 상쇄시켜 아동의 적응에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보고되고 있다(윤명숙, 이묘숙, 김남희, 정향숙, 2012). 따라서 가족구조에 따라 아동의 인지 및 사회·정서적 개인 내적 요인이 조절효과를 보이는지 탐색해 본다면 보다 더 포괄적인 접근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지역사회의 기능적 특성에 대한 효과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문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미 조사된 데이터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문항에 대한 보완이 어려웠다. 그러나 지역사회의 기능적 특성에 대한 명확한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 관계적 측면, 응집성, 분위기 등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들이 추가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보완점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끊임없이 재구조화 되는 가족의 변화 흐름 속에서 아동의 우울에 대한 보호요인을 밝혀내었다는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특히 엄격한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하고 표집크기가 큰 데이터를 활용하여 검증했다는 점에서 일반화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 부모의 정서적 지지가 양부모 및 한부모 가족 아동의 우울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과 지역사회의 기능적 측면이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은, 아동의 우울에 대한 중재 시 부모-자녀의 정서적 관계 및 지역사회 내 친밀한 정서적 분위기를 다루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시해준다. 더욱이 지역사회의 지지적 네트워크를 만드는 작업은 치료 및 상담 장면에서 개인적으로 다루기에는 어려운 이슈이므로 공적 영역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현 시점의 지원정책과 관련하여 보완되어야 할 방향을 함께 논하였는데, 본 연구가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 관련 중재 방안 마련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현아 (2010). 빈곤이 위협한 지역사회 환경을 통해 청소년의 우울 및 불안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41(3), 327-348.
- 강희경, 김영미, 이은주 (2009). 이웃환경 무질서와 청소년 우울간의 관계: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부정적 가족사건의 매개효과 연구. **청소년학연구**, 16(10), 179-204.
-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2). **제8차(2012년)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 통계**. yhs.cdc.go.kr에서 2013년 12월 1일 인출
- 김기정 (2009). **고등학생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위험요인·취약요인·보호요인을 중심으로**. 청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재엽, 최지현, 양세정 (2012). 한부모 가구 자녀와 양부모 가구 자녀의 우울에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여학생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 17(2), 217-235.
- 김태련, 조혜자, 이선자, 방희정, 조숙자, 조성원 외 (2004). **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 남영옥 (2010). 이혼가정 자녀와 양부모가정 자녀의 학교적응 비교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1(3), 219-243.
- 남은영 (2009). 초등학교 3학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와 우울과의 관계. **한국심리치료학회지**, 1(1), 75-89.
- 남현주, 윤희식, 이태영, 신채영, 이동훈 (2013). 한부모 가정 청소년 자녀의 발달과 적응에 관한 최근 연구동향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8(1), 129-168.
- 이현만, 한성희 (1996). 부모의 양육태도가 중학생의 우울성향에 미치는 영향. **소아·청소년정신의학**, 7(2), 167-178.
- 서정아 (2013). 가족 사회자본과 지역사회 사회자본이 청소년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44(1), 135-164.
- 서한나 (2011). 초기 청소년기의 자살생각에 관한 종단 연구: 스트레스와 우울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0(3), 629-646.
- 성운숙, 김영한 (2011). **가족유형에 따른 아동·청소년 생활실태 분석 및 대책연구: 한부모·조손가정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연구보고 11-R05-1).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성태희 (2013). **어머니 상위정서철학과 아동의 정서표현양가성 및 우울수준간의 관계**.

-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송옥 (2012). **여성의 이혼 후 적응과정에 관한 근거 이론적 접근**.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신민섭, 박광배, 오경자, 김종술 (1990). 고등학생의 자살 성향에 관한 연구: 우울-절망-자살간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9(1), 1-19.
- 여성가족부 (2012). **2012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 여환홍, 백용매 (2010). 경계선적 성격특성, 부적응적 완벽주의 및 우울이 자살관련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9(4), 1047-1066.
- 윤명숙, 이묘숙, 김남희, 정향숙 (2012). 이혼가정 자녀의 상실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한국가족복지학**, 35, 73-104.
- 이수연(2004). 가족기능과 사회적 지지가 이혼가정 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학생생활연구**, 9, 15-25.
- 이영호, 송종용 (1991). BDI, SDS, MMPI-D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0(1), 98-113.
- 이주연, 장성화 (2013). 청소년의 우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한국상담심리치료학회지**, 4(1), 41-53.
- 이학식 (2012). **사회과학 연구를 위한 회귀분석**. 서울: 집현재.
- 이현만, 한성희 (1996). 부모의 양육태도가 중학생의 우울성향에 미치는 영향. **소아·청소년정신의학**, 7(2), 167-178.
- 조설아 (2005). **청소년의 자기불일치, 우울 및 불안이 상담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조옥자, 현운강 (2005). 어머니의 정서적 학대와 방임 및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이 아동의 우울성향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6(3), 141-161.
- 지선례, 이숙 (2012). 이혼가정 아동의 우울: 가족유형별 비교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50(3), 1-14.
- 최인재, 모상현, 강지현 (2011).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I** (연구보고 11-R22).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경혜, 이정화, 진미정 (2009). 한국 가족의 변화와 아동의 삶의 질. **아동학회지**, 30(6), 1-14.

- 한상철 (2008). 청소년 가출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4(1), 273-298.
- 홍순혜 (2004). 부모의 이혼이 청소년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양육 부모의 경제수준 및 양육행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17, 151-177.
- Aneshensel, C. S., & Sucoff, C. A. (1996). The neighborhood context of adolescent mental health.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7(4), 293-310.
- Beck, A. T., Ward, C. H., Mendelson, M., Mock, J., & Erbaugh, J. (1961). An inventory for measuring depression. *Arch Gen Psychiatry*, 4(6), 561-571.
- Berk, L. E. (2009). *Child Development* (8th ed). Pearson International Edition, Illinois State University.
- Bronfenbrenner, U., & Morris, P. A. (2006). *The bioecological model of human development*.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 Cicchetti, D., Toth, S. L. (1998). The development of depress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merican Psychologist*, 53(2), 221-241.
- Colomba, M. V., Santiago, E. S., & Rossello, J. (1999). Coping strategies and depression in puerto rican adolescents: An exploratory study.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5(1), 65-75.
- Dawson, D. A. (1991). Family structure and children's health and well-being: Data from the 1988 national health interview survey on child health.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3(3), 573-584.
- Dunn, Judy., Deater-Deckard, K., O'Connor, T. G., Golding, J., & ALSPAC Study Team. (1998). Children's adjustment and prosocial behaviour in step-, single-parent, and non-step family settings: Findings from a community study.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9(8), 1083-1095.
- Garnefski, N., & Diekstra, R. F. (1997). Adolescents from one parent, stepparent and intact families: Emotional problems and suicide attempts. *Journal of Adolescence*, 20(2), 201-208.

- Hetherington, E. M. (1979). Divorce: A child's perspective. *American Psychologist*, 34(10), 851-858.
- Hoyt, L. A., Cowen, E. L., Pedro-Carroll, J. L., & Alpert-Gillis, L. J. (1990). Anxiety and depression in young children of divorce.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9(1), 26-32.
- Hunter, E. C., Katz, L. F., Shortt, J. W., Davis, B., Leve, C., Allen, N. B., & Sheeber, L. B. (2011). How do I feel about feeling? Emotion socialization in families of depressed and healthy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0(4), 428-441.
- Kaslow, N. J., Deeing, C. G., & Racusin, G. R. (1994). Depressed children and their families. *Clinical Psychology Review*, 14(1), 39-59.
- McFarlane, A. H., Bellissimo, A., Norman, G. R., & Lange, P. (1994). Adolescent depression in a school-based community sample: Preliminary findings on contributing social factor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3(6), 601-620.
- Rao, U., Weissman, M. M., Martin, J., & Hammond, R. W. (1993). Childhood depression and risk of suicide: A preliminary report of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32(1), 21-27.
- Sampson, R. J., Morenoff, J. D., & Gannon-Rowley, T. (2002). Assessing "neighborhood effects": Social processes and new directions in research. *Annual Review of Sociology*, 28, 443-478.
- Tyrka, A. R., Wier, L., Price, L. H., Ross, N. S., & Carpenter, L. L. (2008). Childhood parental loss and adult psychopathology: Effects of loss characteristics and contextual factor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iatry in Medicine*, 38(3), 329-344.
- Wallerstein, J. S., & Lewis, J. M. (2004). The unexpected legacy of divorce: Report of a 25-year study. *Psychoanalytic Psychology*, 21(3), 353-370.

ABSTRACT

The protective factors of family structure on child depression: Focusing on parental emotional support and community support

Song, Sooj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rotective effects of parental emotional support and community support on child depression, in the context of family structure. To this end, data from 2,883 children were taken from the research into the promotion policies on children and adolescents' mental health (2011) by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and was then used for the purposes of analysis. The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average point of depression of single parent family children was higher than that of children from non single parent families (nuclear families). Second, parental emotional support and community support significantly influenced depression levels in children. Third,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structure and depression levels in children was moderated not by parental emotional support but largely through community support.

Key Words : family structure, child depression, parental emotional support,
community support

투고일 : 2013. 12. 9, 심사일 : 2013. 12. 20, 심사완료일 : 2014. 1. 17

* Research Intern,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